

◆ 교회소식 ◆

1. "하나 되어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빌 2:2-4)"가 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2.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지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3. 오늘 오후 예배는 기관별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연합과 일치的时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4. 이번주 금요일(5월1일)은 월삭 새벽기도회로 드립니다.
5.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과 장래를 위하여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6. 5월 10일은 전 성도가 하나 되어 화합을 이루는 "한 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효문화---- --, 오전 ??시)(대전 중구 _____)
7. 목사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 필리핀 단기선교와 신학교 졸업식 행사를 위해 선교팀을 인솔하고 출국하십니다.
8. 다음주일 오후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대청소)를 통하여 교회 주변을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우리 지역의 재건축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우소식 ◆

생일 : 생일을 맞으신 분들 축하 드립니다.

수련회 : 월~화요일에 선목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헌금 계좌 안내 ◆ (예금주 : 드림교회)

재정부(농협 471-01-119147) 선교부(농협 355-0005-8058-53)

건축부(농협 355-0005-8059-93)

◆ 새벽기도 제목 ◆

1. 월 -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2. 화 -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3. 수 -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하여
4. 목 - 사명과 선교를 위하여
5. 금 - 일터와 건강을 위하여
6. 토 - 주일예배와 인도자들을 위하여
7. 아픈 성도들의 건강 회복과, 어려운 성도에게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 5월의 교회일정 ◆

- 월삭기도회(1일)
 어린이주일(3일)
 어버이주일(10일)
 한마음 체육대회(10일)
 헌신예배(베드로회 | (17일)

2026표어: 하나 되어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빌 2:2-4)

◎ 4월의 표어 : 부활신앙의 달



대한예수교
장로회

드림교회

담임목사: 박 명 호

Rev. PARK MYEONG HO

부목사 : 김순길 장로 : 최재동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113번길 48

042)532-4004. 533-5445

주일오전 영광예배

오전 11:00 인도/박명호 목사
 예배찬양 ----- 찬양단과 함께
 예배부름 ----- 인도자
 성서교독 --- 교독문96 (어린이주일)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563장
 기 도 ----- ???
 성경봉독 - 행 10:1-8 -- ???
 특별찬양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비전선포 ----- 비전선언문
 말씀선포 ----- 박명호 목사

행복이 넘치는 가정

찬 송 ----- 559장
 헌 금 ----- 다같이
 광 고 ----- 인도자
 봉헌기도 ----- 박명호 목사
 찬 송 ----- 축복송
 축 도 ----- 박명호 목사

새벽 은혜기도회

새벽 5:00 인도/ 박명호 목사
 김순길 목사
 말씀강론 1독 성경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기도

기관별 소그룹

오후 1:30 인도/ 가족대표
 제 1 부 기도회
 찬송/다같이
 기도/말은이
 성경/인도자
 말씀/인도자
 찬송/다같이
 합심기도/다같이
 주기도문/다같이
 제 2 부 회의-회장
 제 3 부 친교모임-회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
 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
 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
 생이로다”(시편 133편1~3절)

삼일밤 진리예배

오후 7:30 인도/김순길 목사
 목 도 ----- 다같이
 찬 송 ----- 526장 ----- 다같이
 기 도 ----- 양승선 권사
 성 경 ---- 행 5:1-11 ---- 인도자
 말씀인도 ----- 인도자
진정한 동역자가 되려면?
 합심기도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성령충만 금요기도회

금 밤 8:30 인도/ 연합기도회
 말씀 선 포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자
야곱처럼 기도의 살바를 붙잡으라!

◆ 목양칼럼 : 손주와 친구들 ◆

손주 녀석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한나절 동안 놀고 갔습니다. 얼마나 크게 웃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노는지 온 동네가 떠들썩하였습니다. 서로 깔깔거리며 웃고, 즐거워하며 노는 손주와 친구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는 모습을 보면서 오는 깨달음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아이들에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소리를 지르고 웃으며 노는데 집중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나간 것을 붙들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며 소중한 오늘을 잃어버리는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온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시 118:24)

아이들에게서 “걱정보다, 즐거움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갈 걱정도, 숙제할 걱정도 하지 않고,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인 우리는 즐거움보다 걱정을 먼저 헤아리는 습관에 익숙해졌습니다. 걱정은 내려놓고 감사를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특권인데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6).

아이들에게서 배운 가장 귀한 깨달음은, 함께하는 기쁨이 혼자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것을 혼자 누리지 않고 친구와 같이 누립니다. 손주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치킨을 시켜서 나눠 먹고, 장난감을 다 꺼내와서 친구들을 놀게 하면서 즐거워 하는걸 보았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오늘을 온전히 살고 있는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내 곁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오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할 있기를 바랍니다.

◆ 4월 예배 및 봉사위원 ◆

	기도위원	성경봉독	오후기도	특별찬양	수요기도	종식
1주	김옥순	김경아	계란전도(부활절)	김선순	연합	
2주	신두섭	양승미	양승미	강대진가정	이은주	섬김
3주	김선순	김옥순	김지은	행복목장	양승선	마리아회
4주	김순길	이은주	기관별 월례기도회	이정희	마리아회	
안내	이정희 김지은		헌금	박종선		